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3년 9월 15일

제 11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아나운서들이 시각장애인 돕기에 앞장섰다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접자도서관 주관 현장영상해설사 교육 참여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문화누리' 시각장애인 문화향유사업 함께하기로



▶9월 14일 빛나는 수료증을 받아온 현장영상해설사들과 함께한 박광재 관장(왼쪽)과 박민정 사무총장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아나운서클럽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14일 까지 (사)영광이 운영하는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접자도서관(이하 영광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상황을 설명해주는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김상준(전 KBS) 감사, 황인우(전 KBS) 운영위원 겸 클럽회보 편집장, 그리고 이규현(전 KBS), 임주완(전 MBC), 박경희(전 KBS), 김병찬(전 KBS), KBS 박영주 아나운서 등 8명의 회원과 서울맹학교 양희성 교사, 강내영 화면해설 작가 등은 1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16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도서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2013영상해설사 양성교육' 이수자들은 앞으로 숙련기간을 거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어 아나운서클럽은 영광도서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배리어프리 문화누리' 사업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나 드라마, 문화체육행사 관람 시 현장 상황을 해설해주는 배리어프리·문화누리 사업에는 7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9월 7일 경기도 양평 강상체육공원에서는 정도영(전 KBS) 회원의 현장 해설로 함께한 경기레포즈페스티벌의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주요 행사는 박민정 사무총장과 최선규(전 KBS-SBS) 회원, 차경애(KBS 부산), 황범(부산민방 KNN) 아나운서가 담당하고 10월 13일 열리는 '이태원지구촌축제'는 박영주(KBS) 아나운서, 11월 9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펼쳐질 '장애 실어 날리는 시각장애인 연 축제 한마당'은 황인우 편집장이 맡아 시각장애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의 장애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온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용어는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각종 차별과 편견,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영광도서관의 박광재(50) 관장은 "아이폰에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바일도서관을 구상하게 되었다. 다행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상훈 교수가 학생 벤처기업 '알미테르'와 함께

영광도서관 박광재 관장
"아이폰의 화면 내용 읽어주는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에 착안해 모바일도서관을 구상하게 되었다"

도서관 회원은 문학·어학·IT교육 등 4만여 종의 콘텐츠 무상 이용

아나운서들의 라디오 중계 경험 시각장애인 돕기에 귀하게 쓰여

'부산국제영화제' '이태원지구촌축제' 장애 실어 날리는 시각장애인 연 축제 등 문화축제현장 시각장애인들에게 생중계

지난해부터 KBS 아나운서들 재능기부 음악회·야구 시각장애인 관람행사 진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도서관에 기증해주었고, 박영주 아나운서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작년부터 KBS 아나운서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음악회 관람 중계와 현장해설로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야구경기 관람 행사도 진행해왔는데, 이제 최고 수준의 교육과 해설을 제공하는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참여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추진한 황인우 편집장은 "방송 초창기 라디오 시대를 개척한 아나운서들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외 계층 돕기, 창조경제에 걸맞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부터 노인 인력 활용까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일이라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접자도서관은 10대 때 중도 실명한 박광재 관장이 28만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 3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신의 집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모바일 기반 무형 도서관이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이나 PC(http://www.ybml.or.kr)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문학·어학·사회과학·IT교육 강좌 등 총 4만여 종의 도서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향일단파방송연락운동 물망비 기념식

9월 27일 오후 2시 KBS 본관에서 개최 '향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잊지 말자는 물망비勿忘碑 기념식이 (사)한국방송인동우회 주관으로 9월 27일 오후 2시 KBS 본관에서 열린다.

향일단파방송연락운동은 1942년부터 43년에 걸쳐 단파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황을 전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운동이다.

'EBS 다크프라임 자본주의' 대상과 프로듀서상 등 4관왕 차지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 작품상 31편 개인상 24명 수상

지역다큐멘터리 라디오 작품상 - KBS 청주 '동요의 정원, 옛 시인의 노래' 아나운서상 - KBS 임수민 성우·내레이션상 황인웅(전 TBC), 라디오 진행자상 PBC의 이동우, 김다혜

9월 3일 KBS홀에서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 SBS 사장)가 주최하는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29개 부문 31편의 작품상 수상작 중 <EBS 다크프라임-자본주의>가 영예의 대상과 프로듀서상(정지은), 성우·내레이션상(황인웅), 음악상(최형운 음악감독)을 휩쓸었다.

9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KBS 한석준, MBC 이진, SBS 유명미 아나운서가 공동 진행한 시상식에서 <늘굴째 굴러온 당신>(KBS), <추적자>(SBS), <시사매거진 2580>(MBC), <궁금한 이야기 Y>(S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파문' 단독보도(CBS), <이명희, 박

재홍의 싱싱싱>(CBS), <당신의 밤과 음악>(KBS), 이해수 아나운서가 연출한 '동요의 정원, 옛 시인의 노래'(KBS 청주)등 31편이 작품상을 받았다.

개인상은 아나운서상 임수민(KBS), 라디오 진행자상 이동우, 김다혜(PBC '이동우, 김다혜의 오늘이 축복입니다'), TV 진행자상 신동엽(KBS), 앵커상 김성준(SBS), 작가상 박경수(SBS '추적자'), 연기자상 손현주(SBS '추적자'), 코미디언상 신보라(KBS '개그콘서트'), 가수상 싸이, 공로상 고해 이종환 씨 등 24명이 수상했다.

관련 특집기사 2면

'김동건 방송인생 50년 축하연' 감동 되새기며 회원들 도타운 정 나눠

김동건 회장 감사 표시 '축하연 열어주고 참석해준 아나운서 선배님께 고마움 이루 말할 수 없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성곤, 박용호, 황수경, 성기영, 박민정, 송현식, 황인우, 이계진, 이해숙, 김홍수, 박찬숙, 채영신, 전찬희 권혁화, 유지철, 김상준, 성선경, 맹관영, 배덕환, 박종세, 김동건, 전영우, 차인테, 김규홍, 이성화, 정홍숙

3분기 정례모임 8월 28일 여의도 열반에서 열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 모임이 8월 2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반>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김동건 회장, 전영우, 박종세 고문과 미국 LA에서 온 송현식 회원을 필두로 권혁화, 김규홍, 김상준, 맹관영, 박민정, 박용호, 박찬숙, 배덕환, 성선경, 이계진, 이성화, 이형근, 이해숙, 전찬희, 정홍숙, 차인테, 채영신, 황인우(가나다 순) 회원과 KBS 아나운서실 김홍수 실장, 강성곤, 성기영, 황수경 부장과 김홍성 팀장, 유지철 협회장 등 28명이 참석해 참석자 전원에게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며 도타운 정을 나누었다.

2분기 모임이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인생 50년 축하연으로 대체된 후 처음 만난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그 날의 감동을 떠올리며 아나운서 전체의 위상을 높인 감격스러운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홍숙 회원의 사냥송으로 시작해 '시'가 또 하

나의 회두가 된 이날 박종세 고문은 회원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과 클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김동건 회장은 "방송인생 50년 축하연을 열어주고 참석해주신 아나운서 선배님들께 고마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클럽에서 증정한 맹관영 회원의 문인화 비파도(7면 게재)와 강재형 아나운서가 엮은 기념책자, 그 귀한 선물도 평생 간직하겠다.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 등 클럽의 활동상을 전하고 앞으로 현역 가운데서도 50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후배가 나오길 축원했다.

4분기 연말 모임은 오는 12월 12일(목) 오후 6시에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 '2013한국아나운서대회'로 대신한다.

아나운서저널 웹진 창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도 PDF로 게재

아나운서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한국 아나운서 공식 홈페이지도 겸해

<아나운서저널>과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를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식 웹진(http://www.announcer.or.kr)'을 창간하고,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도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동시 게재하기로 했다.

신동진(MBC) 연합회장은 "새로운 웹진을 통해 아나운서가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이 다를 것이다. 한국 아나운서 공식 홈페이지 기능도 겸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매체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새 홈페이지에는 KBS, MBC, SBS, OBS, CBS, tbs, febc, PBC 등 8개 방송사 아나운서 500여 명의 사진과 공식 프로필을 비롯해 기존 <아나운서저널>의 지면에 담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추상연 사진작가와 진행하는 <아나운서 변신> 등 이벤트도 매달 진행된다.

초대석

아나운서는 타고난 운명처럼 방송 떠나지 못 해

미주 한인방송의 원로 유덕훈, 김봉구 아나운서

(사)미주방송인협회(회장 김정수)는 1977년 위진록·유덕훈(전 KBS) 아나운서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한국 최초의 TV방송사 공채 1호 아나운서였던 김봉구(전 HLKZ-TV) 회장, 1965년 미주 최초로 한인방송을 실시한 김영우(전 MBC) 부회장 겸 총무가 주도에 창립했다. 김정태, 맹경원, 장인숙, 최운기 아나운서와 서정자 성우 등 16명의 친목단체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며 한인방송의 질적 향상과 동포사회의 결속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블로그(<http://blog.daum.net/kabausakorea/163>)도 개설했다. 미주 정영호 편집위원이 LA에서 한인방송의 원로인 유덕훈(87세, 아하 유), 김봉구(82세, 아하 김) 아나운서를 만나보았다.

초대석에서 미주 원로 두 분을 동시에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 노병을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보를 통해 전·현직 아나운서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방송의 주역 아나운서들이 걸은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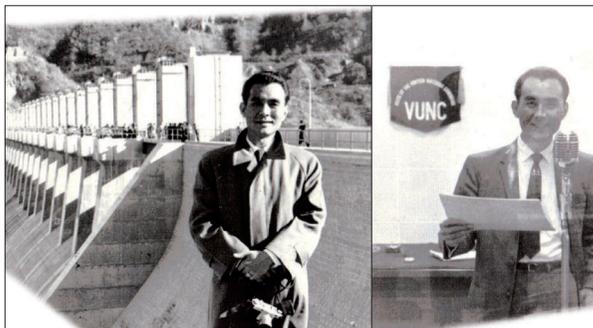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아나운서의 길을 택하게 되셨는지요?
 유: 1948년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KBS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 연극부에서 활동한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해 보라고 권유해 응시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온 응시자 중 합격한 동기생이 홍용기, 황남중, 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 취직이 내정돼 있던 은행을 포기했지요.
 김: 저는 1956년 2월,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 KORCAD(한국RCA배급회사)의 HLKZ-TV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종각 옆 동일빌딩에 있어 '종로텔레비'라 불렸지요. KBS 아나운서 출신 서명석 선배가 방송과장으로 스카우트 되어 공채를 진행했는데, 남녀 아나운서 1명씩 뽑는다고 했지만 입사해보니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때 연출자로 최창봉 전 MBC 사장이 함께 입사해 연출과장을 맡았고 후에 합류한 황문평, 이기하, 황재목, 이평재, 최덕수, 그리고 기술에 강진구, 카메라에 심명식, 마중훈 씨 등이 생각납니다.

HLKZ가 KBS보다 5년 앞서 TV를 시작한 셈이군요. 당시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들다가 직접 아나운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인기가 대단하셨겠네요.

김: 당시 TV 수상기가 400여 대였고 지금처럼 전국 방송망이 아니었지만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 공채 1호 아나운서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TV 방송 시작은 한국이 세계에서 15 번째, 아시아에서 4 번째였는데, 쌀 한 가마니가 18,000 환이었던 당시 17인치 TV 한 대 값이 34만 환이었던니 참 굉장했지요.
 1957년 5월 한국일보 사주인 장기영 사장이 HLKZ를 인수해 회사명을 대한방송(DBC)으로 바꾸었는데 안타깝게도 1959년 2월 화재로 방송기자재 등이 모두 불에 타 중단되었고, 그 후 주한미군TV(AFKN)를 통해 매일 저녁 30분간 방송을 내보내다가 1961년 10월 문을 닫을 때까지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격동과 시련, 수난의 시대를 살아 온 50년대 아나운서들의 초년시절은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그 날부터 6개월간 소리 내어 신문만 읽으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1957년 화천댐 개소식 취재를 마친 유덕훈 아나운서 (사진 왼쪽)
 ▶1965년 오키나와의 유엔군총사령부방송 VUNC 스튜디오에서

들은 아나운서가 됐으니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어찌 된 거냐고 묻기도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나니까 동보연락(기간방송에서 지역 총국과 연락하는 비상용 직통 전화선)을 맡으라고 했고, 그 후 콜 사인(방송 전후에 그 방송국을 명시하는 전파 호출부호)과 9시 뉴스 끝나고 하는 일기예보를 맡겼습니다.



▶인터뷰 후 기념촬영을 한 미주 3인 왼쪽부터 유덕훈, 김봉구, 정영호

유덕훈 KBS 48년 입사

6개월간 소리 내어 신문만 읽다가 콜 사인 투입
 1950년 숙직 때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송길운·최운칠 1·2·3위 석권한 뉴스 전해
 1951년 유엔군총사령부방송 VUNC 에서 21년간 근무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 미국으로 이민

김봉구 HLKZ TV 56년 입사

최초의 TV방송 공채 1호 아나운서로 시작부터 1인 3역
 텔레비전 방송 세계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시작
 1967년 TV연출 공부하러 미국 유학 가면서 정착
 미주방송인협회 초대 회장 지내고 한인방송에서 활약
 지금은 서예가로 제2의 인생 꽃피워

아나운서가 됐다고 자랑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낮 시간에 제 방송을 들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요즘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참 부럽습니다.

김: 제 경우는 입사하자마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인터뷰, 취재는 기본이고 일반 프로그램의 멘트나 사회 등 1인 2, 3역을 했습니다.

유: 초년병 시절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정오 뉴스, 민요, 가곡 등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특히 1950년 4월 12일 숙직 근무 중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운, 최운칠 등 우리 한국 선수가 1, 2, 3위를 휩쓸었다'는 뉴스를 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6.25가 발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미처 피난을 못가 서울에서 3개월간 숨어 살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유덕훈을 발견하면 사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 수복됐을 때 평양에서 방송하다가 1.4 후퇴 때 KBS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고 대구와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때 공산당의 회유에 속아 전인국, 윤용로 선배가 남산 방송국에 나갔는데, 남북되어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에 오시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유: 6.25로 인해 도쿄 NHK 건물에서 유엔군총사령부방송(VUNC-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이 시작되었는데요. 방송과장이던 민재호 아나운서가 VUNC 파견 근무 후 1951년 미국의 소리(VOA-Voice of America) 우리말 방송으로 옮겨가게 돼 9월에 제가 그 후임자로 가게 된 것이 미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습니다. 1958년 VUNC가

오키나와 이전 시 저도 그쪽으로 갔다가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 저는 1962년부터 KBS에서 프리랜서로 'TV 그랜드쇼', '가요 퍼레이드', '홀런 퀴즈' 등을 진행하다가 1967년 TV 연출을 공부하러 미국에 와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미국에 오신 후에도 계속 방송과 인연을 맺고 사셨죠?

유: 저는 1948년부터 1951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3년간 근무했고 1951년부터 1972년까지 21년간 미국 방송국의 한국어 아나운서로 근무했습니다. 24년을 아나운서 생활을 한 셈이죠. 미국에 와서는 한인교회 장로 직을 맡아 시각장애인과 글을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우리말로 읽어 3년 만에 통독하고 카세트테이프 200세트 만들어 선교용으로 보급했습니다. 목소리로 살아 온 아나운서로서 제가 가진 재능을 살려 봉사하고 싶습니다.

김: 저도 미국에서도 줄곧 방송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에 KBC방송 초대 방송국장을 지내기도 했고 1984년까지 한인방송 뉴스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스스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사는 직업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나운서들이 바른말 고운 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지킴이' 같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아나운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5년에 6개월간 LA의 KAN TV를 통해 '우리말 고운 말' 프로그램을 맡아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DVD로 녹화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우리말 방송사와 중남미 파나마까지 제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평생 방송을 떠나지 않고 사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유: 아나운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을 떠나지 못 합니다. 타고난 운명처럼 말입니다.



▶1957년 대한방송(DBC) 정오뉴스 시작 직전의 김봉구 아나운서

김: 아나운서였다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나운서였다는 것이 가장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자부심이 자신을 영원한 아나운서로 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클럽이나 후배 아나운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 아나운서클럽회보는 '아나운서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장을 통해 국내외에 있는 전·현직 아나운서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나운서들의 활동상과 시대상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 귀한 참고가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는 아나운서다운 아나운서가 돼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아나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찾아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서로 경쟁자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면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쌓기 바랍니다.

김: 지금 방송은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만큼 아나운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졌다고 봅니다. 떠나고 나서도 후회가 없도록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아나운서 생활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삶이 길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 선배님은 한국민족서예대전에서 두 차례 특선을 차지한 서예가로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선배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선·후배 아나운서간에 격의 없는 대화와 유대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대담 정리 / 미주에서 정영호(전 KBS) 편집위원

방송가 소식

K.G.B 김태은의 가요뱅크 작전 수행 팬클럽이 해냈어요

작전명 - 2013 군산 한여름 밤의 금강콘서트 방송 프로젝트

세상을 녹일 듯 뜨거운 8월, 군산에서 펼쳐지는 대형 공개방송을 제작·진행하게 되었다. <2013 군산 한여름 밤의 금강콘서트!> 한 달 넘는 준비 기간, 답사, 섭외, 리허설, 본 무대 진행, 마무리 편집과 송출, 행정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 아나운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아나운서로서 책임감도 크지만 보람도 큰 무대 제작·진행! 그러나 난 두렵지 않다.

어언 방송 생활 20년을 코앞에 둔 경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큰 행사를 겁 없이 덤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KGB(‘김태은의 가요뱅크’ 별명)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김태은의 가요뱅크’를 사랑해주는 팬클럽이 있기에 힘이 나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쩔 그리도 잘 만날 수 있을까! 아나운서와 청취자로 만났지만, 한 가족처럼 푹푹 뭉치는 우리가 못 해낼 게 없다! 각자 임무를 정해 도시락, 부채, 기념품



▶ 금강콘서트에 출연한 아이돌그룹 틴탑과 함께한 김태은 아나운서 배부, 수박 음료 서비스, 가수들의 간식 챙기기, 진행자 보호(?)까지 공개방송에 매순간 함께해주는 가족 같은 청취자 팬이 있어 우리가 진정 즐기고, 모든 스텝이 즐겁게 노는 공개방송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올해 <금강콘서트>는 틴탑, 김종환, 김혜연, 미스터

미스터, 박주희, 박구윤, 리아킴, 써니가 함께했다. 4천명은 족히 넘는 방청객 앞에서 초대가수가 두 시간 넘게 열정적인 공연을 마친 후 우린 서로 맘을 닦아주며 감사와 행복의 인사를 건넨다. 밤늦은 시간에도 활짝 웃으며 다음 날 우리만의 뒤풀이 약속을 눈짓으로 건네며.....

몸은 ‘충전이 필요합니다(ZZZ)’ 라는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완전히 방전 상태이지만, 그래도 다음날 KGB 요원들은 또 다시 모여 삼겹살 구이, 김치 곁들이 파티를 하며 완전 충전에 성공! 자칫 걱정, 불안, 피곤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라디오 공개방송이 내게는 행복, 웃음, 개운함이다. 올 여름 KGB 작전 별 다섯 개(★★★★★) 성공!

글/김태은(KBS 전주)

KBS 전주 김태은(1994년 KBS 전주 입사 현재 아침 뉴스광장 앵커, 아침마당 전북 MC, 김태은의 가요뱅크 PD 겸 DJ)



아나운서 2부 신설 황수경 부장 김홍성 팀장 발령



7월 1일부터 단행한 KBS 조직개편에 따라 아나운서 2부를 신설하고 부장에 황수경(사진 왼쪽), 팀장에 김홍성 아나운서를 승진·발령했다.

이에 따라 아나운서 1부는 뉴스와 중계, 2부는 전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한국어연구부는 기존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라디오 뉴스 자동 알리미 시스템 개통식 열려

6월 27일 뉴스 사고를 방지하고자 SMS를 활용한 라디오 뉴스 자동 알리미 시스템을 개통했다.

대학생 여름방송캠프 아나운서 과정과 아나운서 멘토링 교육 KBS 방송현장에서 실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본사 아나운서 교육장과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KBS 대학생 여름방송캠프 아나운서 과정에 김홍수 실장 등 15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어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한 아나운서 멘토링 교육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KBS 방송 현장과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실시됐다. 멘토링은 라디오 DJ, TV MC, 스포츠, 뉴스 분야로 나누어 방송 현장 견학과 말하기와 글쓰기 등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2013 KBS 전문가 동포 방송사 파견 교육 실시 이영호 아나운서 연변 R/TV서 우리말 교육

이영호 아나운서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흘간 중국에서 머물며 연변 R/TV 방송총국에서 우리말 교육을 실시했다.

해피FM서 10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한 공로로 김성은 아나운서 ‘골든 보이즈’ 등극

김성은 아나운서가 8월 6일 KBS 해피FM(수도권 주파수 106.1)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DJ들의 꿈인 ‘골든 보이즈’ 기념패를 받았다.

김 아나운서는 2003년 5월 KBS 해피FM ‘언제나 청춘’을 맡은 이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발 해피FM 김성은입니다’ 까지 만 10년간 해피FM과 함께한 공로로 골든 보이즈의 영예를 안았다.



MBC TV - RADIO 가을 개편 아나운서들 새 프로그램에 투입



사랑을 받았던 MBC ‘뽀뽀뽀 아이조야’가

MBC가 폐지된 후 신설된 ‘뚝?뚝!키즈스쿨’에 이징민 아나운서가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 한편,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자리 창조 프로젝트 드림 헌터’에 MBC 김나진, 이진 아나운서가 투입되었다.

라디오의 경우 9월 2일 대대적인 추동계 개편을 맞아 MBC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친한 친구’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후속으로 ‘FM 데이트, 강다솜입니다(사진)’가 신설되었다. FM4U에서는 ‘FM데이트’와 함께 ‘김소영의 FM 영화음악(새벽 2시~3시)’이 오랜 전통의 ‘영화음악’의 부활을 알렸다.

MBC 웹진 언어운사 홍보 도우미 제3기 ‘다솜이’ 3개월 과정 마쳐

MBC 아나운서들이 격주로 발행하는 웹 매거진 ‘언어운사’(ann.imbc.com)의 홍보 도우미인 제3기 ‘다솜이’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활동을 갈무리했다. 2006년 1월 창간한 ‘언어운사’는 MBC 아나운서들

의 방송 현장과 일상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바 있다. 12명의 ‘다솜이’들은 취재와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실제 방송 제작과 출연, 실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손정은 아나운서, 남편과 함께 10월 말부터 1년간 미국 유학



손정은 아나운서가 내달 말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진행을 맡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는 영화다’ 등에서 하차하고 9월 19일부터 휴직에 들어간 손 아나운서는 “더 좋은 방송인이 되어 MBC를 위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나운서실, 국군장병 위한 시낭송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재능 기부



김소원, 유경미, 김주희, 장예원 아나운서가 8월 14일 국군 장병들을 위한 시 낭송 영상제작에 참여, 전국 57개 부대 20만 장병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최영주, 최영아, 박은경, 윤현진, 김지연, 정미선, 이운아(사진) 아나운서는 부민문화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망원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30여 명의 초등학생들과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최혜림 아나운서 ‘희망 TV’ 원정대장으로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

최혜림 아나운서가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와 함께 8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2012년 최기환 아나운서에 이어 2013년에는

최혜림 아나운서와 가수 김태우 씨가 ‘희망 TV’ 원정대장으로 발탁되어 12명의 원정대와 함께한 나눔 활동은 11월 15, 16일 ‘2013 희망TV S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스포츠 뉴스로 알려진 박은경 아나운서 ‘박은경의 스위트 뮤직 박스’ DJ 맡아

박은경 아나운서가 103.5 Mhz 러브 fm에서 ‘박은경의 스위트 뮤직 박스’ DJ를 맡았다. 평소 올드 팝과 클래식을 좋아했던 박은경

아나운서는 이전 스포츠 뉴스 진행 때에는 달리 차별한 진행으로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 청취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미선, 김소원, 최영아 아나운서 해외연수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

7년간 8시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하다 작년 연말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소원 아나운서가 샌디에이고에서 방송 관련 공부를 마치고 7월 29일에 복귀했다.

또한 정미선 아나운서가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7월 15일부터 출근했고, 6개월간 딸과 함께 샌디에이고로 떠났던 최영아 아나운서도 8월 12일 복귀했다.



신지혜 아나운서 부장 승진, 올해도 제천영화제 행사 진행



7월 4일자로 신지혜 아나운서가 부장 발령을 받았다. 신 부장은, 그동안 부서 내 업무의 내실을 다진 전임 장주희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열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이기도 한 신지혜 부장은 8월 14일 개막된 제9회 제천영화제에 참석해 의림지에서 진행된 심현정 음악감독의 <지구의 눈물 콘서트>의 사회(사진)와 제천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의 악사>의 심사를 맡았다. 신지혜 아나운서는 국내 최장수 영화음악 프로그램인 CBS-FM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제작·진행자로서 영화계의 주요 인사로 활약 중이다.

CBS 아나운서들, 스피치 교육 등 다양한 강의 인기 강사로 활동

김용신 아나운서가 7월 10일 <한국인터넷진흥회> 명사 특강을 비롯해 7월 31일에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스피치 교육을 의뢰받아 열강을 했다. 장주희 아나운서도 스피치 코칭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스피치 강의를 시작해

9월 11일과 16일에 이어 23일에도 <실버라이프 코칭 강사 양성과정>의 강사로 나선다. 박재홍 아나운서도 9월 29일 다문화단체 '점프'에서 강의를 하는 등 CBS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강의와 스피치 교육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정은길 아나운서 여성을 위한 재테크 서적 「여자의 습관」출간



당 시스템을 파악했고 2008년 내 집 마련에

정은길 아나운서가 재테크 서적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을 출간했다. 2007년 교통방송에 입사한 정 아나운서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tbs의 수

성공한 후 2012년에 28년짜리 아파트 대출금 청산했으며 2012년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정은길의 주말이 좋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은길의 인조이 머니'라는 코너를 만들어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들을 모아 재테크 책 집필에 몰두했고 돈이 모이는 생활 속 습관 등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책에 담았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청률 제고를 주제로 라디오 워크숍 개최

평화방송 라디오 워크숍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청취율 제고'라는 주제로 8월 23일, 24일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열렸다. 평화방송 아나운서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선교프로그램을 다루는 1조와 일반 프로그램을 다루는 2조로 나뉘어 아나운서로서 정체성 확인과 위상 정립, 이상적인 방송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임토의 중인 조한구 아나운서(가운데)



속초에서 펼쳐진 나라사랑 축제 극동방송 전국어린이합창단 공연



광복의 기쁨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어린이합창단의 화음이 강원도 속초에 울려 퍼졌다!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전국어린이합창단이 8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속초시 청초호 야외 특설무대에서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 2013'을 열었다. 군장비체험전, 뮤지컬, 불꽃축제로 펼쳐진 이날 식전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육해공 장병의 공연에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본 공연인 열린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광복의 기쁨'에서는 제주 팀의 1920년대 동요 메들리, 대구 팀의 'Joyful Joyful', 포항 팀의 '무궁화' 그리고 대전 팀의 '나 여호화를 즐거워하리'로 이어졌다. 두 번째 '통일의 함성'은 울산 팀의 '아리랑', 영동 팀의 'Miracle' 광주 팀의 '통일 노래 메들리'로 꾸며졌다. 세 번째 '나라 사랑' 무대는 창원 팀의 'We go together'과 목포 팀의 '약한 나로 강하게'에 이어 서울 팀이 'Amazing Grace'로 피날레를 장식했고, 500여 명의 출연자가 '고향의 봄'과 '조국찬가'를 연합으로 부르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었다. 해마다 미주 등 전 세계를 돌며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해온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바리톤 정경호, 팝페라 가수 김수진 씨가 특별 출연한 이번 음악회에는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임성준 전 주 캐나다 대사, 육군 제8군단장 김유근 중장, 해군 제1함대 조영주 중장, 박명수 속초시의장, 이명형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등의 내빈과 속초 시민이 함께했다.

바른말 고운 말 팀 매주 본사 게시판 업그레이드 우리말 순화작업 나서

바른말 고운 말 팀(조한구, 김슬애)은 매주 서울 본사 게시판에 바른말 고운 말을 게시하며 TV, 신문 등 현업자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조한구 아나운서가 매주 방송을 모니터링한

후 틀리기 쉬운 우리말과 전문 용어나 외래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회의 시간에 발표, 아나운서실은 물론 보도국과 공조해 기사 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학 부장 승가연수교육에서 <감성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 강의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주최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충남 공주에 위치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2013

승가연수교육'에서 말하기에 대해 강의했다. <감성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란 제목의 강좌에서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말하기를 주제로 대중 포교에 중요한 스님들의 설법에 필요한 발성, 스피치 기법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했다. 수업 중 녹화된 화면을 보며 음성뿐 아니라, 시선 처리와 표정, 몸짓 등을 함께 모니터링하며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대일 맞춤형 강의는 참가한 스님들의 큰 호응과 만족을 이끌어냈다.



우리말 다듣기 눈초 芻初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1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편집자 주 : 전영우 고문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이규향 회원의 글을 연재합니다. 고려대 국문과 졸업 후 1961년부터 37년간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KBS한국어연구회장을 지낸 이 회원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작업 당시 방송인으로서 유일하게 조절 검토위원으로 참여했고, 국립국어원 전신인 국어연구소의 외래어 심의위원, 동덕여대 강사를 지냈습니다. 저서로 '표준 한국어 발음사전'(공저), '아나운서로 가는 길', '미국야구'와 일본에서 동시 출간한 수필집 '0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 규범은 국어발음의 현법 이요, 모든 음운법칙의 모법(母法)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나는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으로 이를 표음(表音)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꽃의 경우 [꼬지]꽃이, [꼬노리]꽃놀이, 꽃밭 등에서는 발음대로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 어원(語源)을 밝혀 적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바이를 형태(形態)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낱말은 적힌 대로 읽지만 그렇지 않은 어휘는 적힌 대로 읽지 않는다. 하늘, 땅, 산, 바다, 거름(비료), 물리(物理), 방목사(방목사(方牧師) 등의 표음주의 어휘들은 적힌 대로 읽는다. 반면 [차미슬]참이슬, [나방]남량(綱), [거름]겉음(보행), [물리문리(文理), [태능]태릉, [선능]선릉, [방목사]박목사(林牧師)처럼 소리대로 적지 않는 낱말들은 표기대로 읽지 않는다. 매년 여름 특집방송 제작 때 방송가에서 문제삼는 남량(綱)의 발음을 답례(答禮)(답례와 자음 환경이 같다 하여 [남량]으로 오해하는 방송인이 많다. 남량이란 남(綱)은 '보내다, 령(綱)은 '시원함'의 뜻으로 '시원한 기운을 보내다'는 것이고, 남

하늘, 땅, 물리(物理) / [차미슬], [나방], [물리]문리(文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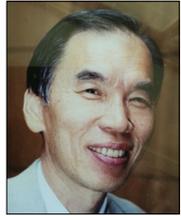
표음주의 어휘들은 적힌 대로 읽고 / 형태주의 낱말들은 표기대로 읽지 않는다.

에게 받은 예를 보답한다'는 뜻의 답례 역시 소리대로 적지 않는 형태주의 표기이다. 굳이 표기대로 읽을 수도 있으나 조음(調音)이 어려워 발음 경제의 음운을 택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는 국어학계의 통념이 지배적이던 60년대 초, KBS 아나운서들은 사건(事件)을 [사:겐], 헌법(憲法)을 [헌:뽽], 특히 발음하기 곤란한 '곤난(困難)'을 과감히 [골:란]으로 발음해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곤난'은 역행자음동화의 근거를 만들어주어 '곤란'으로 표기 자체가 바뀌었다. 참고삼아 영어와 프랑스어는 표기와 발음이 90%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히라가나)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여 발음부호가 없다. 한편 한국어는 40%가

량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가 세워본 가설이다. 어느 민족이나 말이 먼저 있었다. 후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눈에 보이게 적어 보존하기 위해 만든 기호가 문자이다. 선언후문(先言後文)의 시대를 거쳤으므로 '선발음 후표기'의 대원칙이 생긴 것이다. 일찍이 선구자적인 KBS 아나운서들의 파격적인 방송이 오늘날, 표기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형태주의 발음법의 모태(母胎)가 된 셈이다. 한국어는 표준어를 표기대로 읽는다고 표준발음이 되지 않는다. 건물에 외장(外裝)과 내장(內粧)처럼 언어에도 눈에 보이는 표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음이 있다. 표준발음을 도외시한 국어 교육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부실 공사 같은 건물이라 할 수 있다.



ROTC 1기 임관 50주년 축하행사 준비로 바빠



최명웅(전 KBS)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군사교육단) 임관50주년 행사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10월 10일 10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와 동부전선 안보관광 등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63년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ROTC 1기 소위로 임관한 최 회원은 65년 KBS 아나운서 입사해 TV 동물왕국, 라디오 정오뉴스를 진행했으며 98년에 정년퇴직했다.

9월 상암동에 프로덕션 리멤버미디어 창업



이운철(전 MBC)

9월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프로덕션 리멤버미디어를 창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원은 1981년 입사 후 아나운서국 부국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안동MBC 사장을 지냈다.

가요무대 독일공연 현지 녹화 특집방송 진행



김동건(전 KBS) 회장

8월 3일 한독 수교 130주년과 근로자(광부,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기념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독일 루르공업지대의 중심 보쿰시 루르콩그레스보룸에서 3,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가요무대를 진행, 8월 12일과 19일 2주 연속 방송했다.

또한 9월 3일 방송의 날 50주년 특집 KBS 제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자신의 방송 인생 50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산동 정심초 교감으로 전보, 교육연구 논문 공모 출품



채영신(전 KBS)

9월 1일자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초등학교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정심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한편 올해 회갑을 맞은 채 회원은 교육정보원이 주최하는 제35회 교육연구 논문 공모에 '초등학교원의 「교원 업무 정상화」 인식 및 향상 방안 연구'를 출품했다.

홍익대 초빙교수로 임용, 9월부터 현대인의 화법 강의



박경희(전 KBS)

작년 말 정년퇴직 후 홍익대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올해 2학기부터 교양과정 '현대인의 화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7년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회원은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강사와 중앙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2011년부터 국립국어원 강의로도 맡고 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내 방송과 개막식 사회

유수호(전 KBS), 표영준(전 KBS), 김범수(전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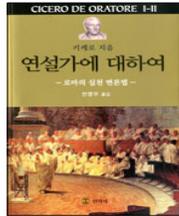


유수호(왼쪽), 표영준 회원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내 방송 겸 인터넷방송 중계를 맡아 2012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세계대회의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했다.

김범수 회원은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 대변인과 함께 개막식의 사회를 보았다.



로마의 실천변론법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번역 출간



전영우(전 KBS) 고문

키케로(Cicero)의 '데 오라토레(De Oratore, 연설가에 대하여: 민지사)' 3권 중 1·2권을 번역, 출간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웅변가 크라수스와 안토니우스가 연설가와 변론법에 대해 젊은이들과 벌인 담론을 기록한 책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토론 교과서 등 지금까지 30여 권의 저작을 집필했다.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 대회 성황리에 치러



성선경(전 DBS)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부회장으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를 성황리에 이끌었다.

성 회원은 부근인 이병열(전 KBS) 회원과 함께 노원구 하계동에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과 아이스링크가 있는 동천재활체육센터, 지적장애인 자활시설인 사회적기업 동천모자를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프로야구 경기 무료 중계 해설



정도영(전 KBS)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현장 해설로 함께하는 야구경기 관람 행사' 8월 21일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무료 중계를 맡아 시각장애인 야구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뉴스와이 출연, 육영수 여사의 삶과 예지원 이야기 전해



강영숙(전 MBC) 고문

8월 15일 고故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서거 39주기를 맞아 뉴스와이 '신윤의 정정당당'에 출연해 육영수 여사의 삶과 육 여사의 뜻을 이은 예지원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CTS 기독교TV 추석 특집 제작 위해 아프리카 케냐 방문



최선규(전 SBS)

CTS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MC로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추석 특집방송을 제작하고 선교 사역 활동에 동참했다. 198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최 회원은 91년 SBS로 이적해 95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제16기 부의장 취임



차인태(전 MBC) 부회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5대 평안북도 도지사를 지내고 다시 대학 강단으로 옮긴 지 6년 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제16기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아나운서, 아나운싱 관련 저서 두 권 출간



김상준(전 KBS) 감사

아나운서(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어 발음과 낭독(지구문화) 두 권의 책을 올 상반기에 출간했다.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란 어떤 직업인가'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진 아나운서'처럼 우리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정리했고, 한국어 발음과 낭독은 표준발음법 예시 후 관계있는 발음낭독 자료를 싣고 발음연습과 낭독연습을 하도록 했다.

이산가족찾기 30주년 맞아 언론의 집중 조명



이지연(전 CBS)

KBS 제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이산가족 찾기 MC를 맡았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어 6월 28일자 조선일보 '그때 그' 인터뷰, 6월 30일 KBS 제1TV 특별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에 출연했다.

채널A 연예 프로그램 MC로 6년 만에 방송 복귀



유정현(전 SBS)

8월부터 박지윤(전 KBS) 등과 함께 채널A의 새 예능프로그램 '초고속 비법쇼 돈나와라 똑딱'과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의 MC를 맡았다.

1993년 입사한 유 회원은 1998년 프리랜서 선언 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방송계를 떠났었다.



미주 회원들 고국 나들이



송현식(전 KBS)

2년 만에 귀국해 9월 말까지 3달간 머물며 미주방송인협회 고문으로서 회보 편집회의에 참석해 미주 배송 문제 등을 논의했다. 1970년 입사한 송 회원은 72년 PD로 전직해 사회교육국 부장, 미주한국방송(KTE) 국장, 라디오정보센터 국장을 지내고 1999년 미국에 정착했으며 미주방송인협회 18대 회장을 지냈다.



최숙경(전 KBS)

LA BBCN은행의 예금·행정 업무 총괄 전무로 분주했던 일상을 떠나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고국에서 망중환을 즐겼다. 특히 1974년 2기 아나운서로 입사 후 6개월 남짓 근무했던 제주를 78년 미국 이주 후 처음 방문, 제주 KBS에도 들르는 등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임옥자(전 KBS)

8월 말 5년 만에 모국을 방문해 장남 혼사를 치렀다. 1979년 동아방송에 입사한 회원은 1983년 퇴직 후 유니세프에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현재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소재 A&K 디자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알림

위진록 자서전 출판기념회 개최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은 미국에서 수필가로 활동 중인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 선생의 자서전 고국 출간에 맞추어 평양사범대학교총동창회와 함께 85세 평생 나그네인 위진록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 2013년 10월 19일(토) 정오

곳 :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 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070-8668-5795)

회비 : 3만 원

문의 : 한국아나운서클럽, 02-784-5040/070-7501-3842

고맙습니다

9월 10일까지 입금 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황인운(전 TBC) 100만 원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축하합니다

임옥자(전 KBS) 8월 31일 장남 박진호 군 혼사 오승훈(MBC) 8월 31일 부산에서 오랜 연인과 혼인 이현경(SBS) 8월 12일 득남 유진영(OBS) 7월 27일 득남 오미영(전 KBS) 6월 29일 딸 김윤아 양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김중식(전 MBC) 8월 18일 모친상 한준호(MBC) 7월 23일 모친상, 8월 14일 빙부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옥(MBC) 퇴사, 6월 5일자로 대전MBC 사장 취임 나경은(MBC) 8월 7일 퇴사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Zoom-in 박찬숙(전 KBS) 부회장 뮤지컬 토크콘서트 'Who am I'에서 자작시 낭송

“제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흔쾌히 참여하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인 ARTS 단장 길성원의 제의 바로 받아들여 서울소년원생 위한 자선공연 자문역 맡아

가을이 오기를 재촉하듯 비가 내리던 8월 29일 밤,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뮤지컬 토크콘서트 ‘Who am I’의 5번째 공연이 진행되었다.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획된 공연은 여러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1, 2부 시작 전에 박현옥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고 박찬숙 아나운서의 시낭송도 들을 수 있었기에 더 특별하게 와 닿았다.

1968년 KBS에 입사해 우리나라 제1호 여성 앵커로 활약했으며 소설을 발표하기도 한 등단 작가의 자작시 ‘알함브라 공주’는 230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박찬숙 부회장은 지난 5월 8일 첫 공연이 시작될 때부터 프로그램 구성, 섭외, 홍보까지 다방면에 걸쳐 자문을 맡고 있었다.

여전히 바쁘신 것 같아요.

현재 ‘한국-터키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YTN에 다녀왔는데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더러 스튜디오에 나가기도 하고, ‘Who am I’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공연장에 옵니다. 기회가 닿으면 오늘처럼 시낭송도 하지요.

‘Who am I’ 콘서트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 평소 그 쪽 관계자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인 ARTS(아르츠)의 길성원 단장이 ‘착한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인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부탁해 흔쾌히 응했지요.

공연 수익금이 서울소년원(경기도 의왕시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뮤지컬 배우를 꿈꾸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금호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입장권 구매는 물론 소년원 학생들이 대학에 진

학할 경우 4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무대는 어떻게 꾸며지나요?

‘Who am I’ 콘서트는 그림, 이야기, 음악, 시 등 다양한 예술을 즐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 받는 공연입니다.

1부 오프닝은 공연장 밖 전시 공간과 공연장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수경, 김소연, 송용진, 정성아, 정성운 등 그 달의 뮤지컬 배우가 재능 기부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며 1, 2부로 나누어 100분간 콘서트를 펼치는데, 중간 휴식을 시낭송으로 대신하는 셈이지요.

지난 5월 29일 제2회 공연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를 낭송했고, 소년원 출신의 슈퍼스타K 출연자 최다연, 연극배우 김명수 씨에 이어 5회 공연 무대에 다시 선 겁니다.

자작시를 낭송하셨는데, 평소 시를 자주 쓰시나요?

예전부터 조금씩 떠오르는 감상들을 적어본 것인데요. 처음 소개한 ‘알함브라 공주’의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 번 준비했습니다.

붉은 성채라는 뜻의 알함브라(Alhambra)는 1482년에 완성한 아름다

익숙하면서도 좋은 목소리, 자작시 ‘알함브라 공주’ 낭송 큰 호응 받아

나의 삶의 금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0월 사진작품 ‘휴TV’ 방영 앞두고 작업 중 - 두 번째 사진전 여행 준비

운 궁전인데요. 아랍문명권에 속해있는 한 왕족이 260년에 걸쳐 만들었지만 전쟁에 패해 민족 전체가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에게 로드리게스의 기타 연주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알려졌지만, 스페인에 가서 그 궁전을 보면서 숨겨진 역사를 들여다보니 눈물 흘리며 떠나던 ‘공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 서울소년원생 장학기금 마련 위한 자선공연 중 시낭송 무대. 왼쪽부터 MC 길성원, 박찬숙, MC 양준모

어 쓴 시였습니다.

‘한국-터키 친선협회’ 회원 분들도 공연 보러 자주 오시나요?

물론입니다. ‘한국-터키 친선협회’가 1999년 8월 4만 명이 사망했던 터키 대지진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66명의 발기인이 20여 억 원의 성금을 모아 ‘형제의 나라 터키’에 전달했지요.

현재 450여 명의 회원이 참전용사의 유

제 능력이 된다면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40여 년간 토크쇼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는 제 저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Who am I’ 콘서트 공연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9월 26일, 10월 31일, 11월 21일, 12월 19일까지 총 4회의 공연(문의 전화 02-515-0962)이 남아있는데요. 소년원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뮤지컬 배우들이 뜻있는 공연을 올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작품이 10월부터 케이블 방송 ‘휴TV’에 방영될 예정이어서 현재 영상작업 중이고요. 두 번째 사진전을 준비하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은 것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으로서 선배님들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글/ 유혜진 객원기자 eternityjw@naver.com



우전 맹관영 비파도

가을에 꽃 피고 여름에 열매가 익는 약용식물 비파는 노란색 열매가 마치 황금덩어리 같다 해서 황금환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방송인생 50년을 뜻하는 5개의 열매를 각기 젊은 푸른색, 한창때의 중간색, 완성기의 황금색으로 표현하고 가내에 부귀가 넘치길 바라는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작가 맹관영(전 KBS)
 • 1967년 TBC 입사, 1997년 KBS 정년퇴직
 현재 한국문인화협회 고문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 본 회보 제호 작가



GASTROPUB

☆☆☆ EAT & DRINK ☆☆☆

GASTRO
PUB

☆☆ EAT & DRINK ☆☆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1F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0 아브뉴프랑 2F

CHINESE CUISINE

CHAI 7°7

CHINESE CUISINE CHAI 7°7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2-3F / 청계천점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미래에셋센터원 B2F
이태원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9-45 호성빌딩 2F / 현대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164 현대백화점 8층